

## 李宅淳 警察廳長, 治安外交 위한 海外 순방

### -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경찰청과 교류협력 약정 체결 -

이택순 경찰청장이 지난 6월 17일부터 25일까지(8박9일)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경찰청과 교류협력 약정 체결 및 치안총수 회담 등 치안외교를 위한 해외순방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과 여행객 관련 사건사고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 등 국제범죄에 대한 경찰기관간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경찰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번 방문기간 중 3국 경찰청과의 교류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체제를



이택순 청장과 하워드 브로드 뉴질랜드 경찰청장이 경찰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구축하고 치안총수 회담 및 교민 유학생 등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안전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

편 호주 연방경찰 국제과장단(IDG)과 뉴질랜드 경찰대학(Police College)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이들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국들이 최근 들어 여행객과 유학생 및 해외 이민자들이 급증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교민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시아권에 치중되어 있던 경찰교류협력 기반을 다변화하여 한국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폭 확대

### - 피해자 · 피내사자 · 중요 참고인까지 -

경찰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그간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해 왔던 조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폭을 피해자 · 피내사자 · 중요 참고인까지 크게 늘리는 한편,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한 참여 제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범위 확대와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업무지침을 시행했다.

이는, 지난 '99년 경찰청이 수사기관 최초로 시행한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에 이은, 수사과정 변호인 조력기회 확대를 위해 진일보하는 또 하나의 선진적인 조치로서, 그간 「피의자」에 비해 상

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요 참고인 · 피내사자 · 피해자 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지침 중 하나인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지침은, 지난 99년 시행한 동 지침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조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단지 「피의자」 신분인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 왔던 「중요 참고인 ·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찰

수사과정상 중요 참고인 ·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파출소에서도 「사실확인원」 발급

경찰청이 그간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만 발급해 오던 각종 사실확인원을 지난 7월 1일부터 파출소(552개)에서도 발급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 도서지역 거주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실확인원은 사건사고, 교통사고, 도난사고, 도난해지, 변사, 화재사건 등 6종으로서 지난 해부터 사실확인원 발급부서를 민원실에서 지구대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발급체제로 전환 후 발급된 사실확인원 410,229건 중 지구대 이용자가 20%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자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축을 위해 이번에 발급부서를 파출소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사실확인원 파출소 발급체제 구축에 따라 민원인들이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시

간 · 교통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 파출소 등 총 1,611개소의 발급체제가 정착되면, 점차 치안센터(1,616개소), 치안본소(175개소) 등 총 3,402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보다 획기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 사실확인원이란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민원인이 피해사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아 보성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본인은 신분증, 당시자의 배우자 및 직계친족 등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과 본인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함.

## 社會弱者 보듬는데 큰 역할 기대

### 한명숙 총리, 제 60주년 女警의 날 기념식서 강조



제 60주년 女警의 날 기념식이 지난 6월 30일 경찰청 지하 대강당에서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이주자 여경회장, 내빈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윤순옥 경사 등 여성 7명이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

아 일계급 특진했으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표영선 경위 등 5명에게는 포상이 수여됐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총리는 치사를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 범죄,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공익사범,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 주변의 불안 요인들을 근절해 나가는데 여경들이 지닌 예민한 감각과

세심함은 귀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우리 사회의 악자를 보듬고 사회내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도 여경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여경 근무영역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미 군정때 창설된 여경은 1972년 여성 순경 공개 정례회, 1989년 경찰대 여학생 입학, 2000년 여경특공대 창설 및 여성 간부후보생 채용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현재 4천 500여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 중으로, 경찰청은 매년 순경 공개 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 충당, 2014년까지 여경 수를 전체 경찰관의 10% 수준인 1만명선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찰청장 이택순이 국립묘지 참배를 하고 있다.

국립묘지 참배를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과 수도권 지역 회장단 일행은 현충일 하루 전인 지난 6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과 경찰총헌탑을 차례로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 「경범죄처벌법」 대폭 손질

### 경찰청, 時代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방침

각종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54년 4월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으나 지난 88년 「장발 및 저속의상」, 「유언비어 날조 및 유괴」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담배꽂초 투기, 노상방뇨 등 21개 범죄 유형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허위

신고, 관명(官名) 사칭 등 29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돼 있으나, 경찰청은 이 가운데 「굴뚝 등 관리 소홀」,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 「미신요법」,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뱀 등 혐오 동물 진열 행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특히, 「굴뚝 등 관리 소홀」 조항은 굴뚝뿐 아니라 환풍기,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통풍에 불편을 줄 경우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3년간 실제 범칙금 처분 건수가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또한, 장물을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는 전당포가 거의 사라지면서 지난 3년간 범칙금 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아울러, 경찰청은 또 「과다 노

출」은 「성기 노출」로, 「인근 소란」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으로 처벌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조항에는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PC방이나 당구장 등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 행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찰청은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처분 대상과 즉결심판 청구 대상을 범칙금 처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범칙금 2만~5만 원이 너무 적다고 보고 외국 사례를 검토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카메라 현장



최근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남대문 가족한마당 체육대회」를 갖고 화목한 직장분위기 만들기에 주력했다.



미국보청기



경우회 인천시지부자문위원장  
전 대한노인회 중앙회운영국장  
대표 김두열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디지털 고막형



디지털 귓속형



귀걸이형



포켓형

부시 미국(전) 대통령  
포드 미국(전) 대통령  
레이건 미국(전) 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잡음이 전혀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아주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